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 폐막 전체회의 특별연설

존경하는 도널드 에반스 미 상무장관,

안 피트 헤인 도너 네덜란드 법무장관,

바오지르 피레스 브라질 감사원장,

그리고 각국의 수석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법무부와 조직위원회 회원국,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신 여러분 모두 계시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반부패'는 21세기의 새로운 화두이자 최대 도전과제입니다. 사실 반부패는

최근에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인류역사는 일찍이 로마가 쇠퇴한 이유로 부패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반부패'를 강조해 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14세기 말부터 약 500년간 지속된 조선왕조에서는 '청백리'라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최악이고 청렴성이 미덕이라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부정부패는 더 이상 국내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입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은 부패문제를 초국가적인 현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도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에 버려진 오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이웃나라의 강을 오염시키듯이, 부정부패도 그 행위자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그 해악이 우리 모두에게 미칩니다. 우리 모두가 부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정부패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의 퇴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반부패 전략도 구조화, 체계화,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부패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부패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정의의 해침입니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구성원간에 신뢰가 싹트지 않습니다. 희망과 사기를 꺾고 피해의식과 좌절감을 안겨 줍니다. 투명과 공정의 문화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또한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협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부정부패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국정운영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민주주의와 부정부패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상극인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저해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기능을 마비시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기업과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와 빈곤, 남북문제, 테러리즘과 같은 전세계적인 문제들 역시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부정부패는 인류가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최대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번 포럼의 주제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도전, 함께 하는 책임' 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패의 극복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윤리의식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 부패는 효과적으로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 토대는 합리적인 입법과 공정한 사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부패로 인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는 부패 추방의 첫걸음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국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숏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어 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는 경제적 번영을 이룩해 냈습니다. 남북 분단과 군사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도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여야간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였습니다.

부정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구조적인 부패를 청산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과 같은 폐해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청산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을 국정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 속에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저 자신부터 과거 구조적인 부패의 근원이 되었던 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확고히 단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단지 돈이나 대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파괴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정부패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협력하는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패 극복을 위한 저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여러분은 각국의 부정부패 현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부패 척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먼저 깨닫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혜를 나눈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 와 함께 개최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깨끗한 21세기, 부패 없는 지구촌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되는 '최종선언문' 이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각별한 우정과 존경의 인사를 전하면서 '반부패 세계포럼' 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